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Pleiades Shipping orders second aframax at Daehan

대한조선이 그리스의 Pleiades Shipping Agents로 부터 두번째 아프리카막스탱커 건조계약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115,000DWT급 유조선이며, 시장관계자들에 따르면 선가는 4,700만달러로 추정된다고 보도됨. 지난 6월에 동형 선박 1척을 수주한 바 있는 대한조선은 2021년말, 2022년 3월에 각각 인도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Qatar Petroleum awards key ISND offshore deal to European contractor giant

이탈리아의 Saipem이 Qatar Petroleum로 부터 EPC계약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해당 공사는 Idd El-Shargi North Dome (ISND) 유전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공사라고 보도됨. 카타르는 저유가 기조에도 불구하고 유전 및 가스 개발 프로젝트를 지속하고 있다고 보도됨. (Upstream)

Malaysian company agrees to buy jack-up drilling rig

말레이시아의 Icon Offshore는 근해 시추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jack-up drilling rig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jack-up 구매 비용으로 4,180만달러를 지불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2014년에 건조된 이 jack-up은 2019년 6월말 장부가로 1.1억달러로 책정된 바 있음. (Upstream)

BP, 10년 내 LNG 포트폴리오 2배 증가

슈퍼 메이저 BP사는 2030년까지 LNG포트폴리오를 30MTPA로 두 배 이상 늘릴 계획이라고 보도됨. 이미 2017년에서 2019년까지 LNG공급량을 +75% 가량 늘렸다고 보도됨. BP는 LNG뿐 아니라 전력, 바이오 등 통합 에너지기업으로 변모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컨테이너선 운임 연일 최고치 경신

컨테이너선 운임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보도됨.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9월 말 1,443.54p를 기록하며 전주 기록한 올해 최고치를 갈아치웠다고 보도됨. 북미노선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COVID19에도 불구하고 운임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컨테이너선사들이 운영하는 선박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두산 오너가, 재무구조 개선 위해 퓨얼셀 나머지 지분 판다

두산그룹의 오너 일가가 두산퓨얼셀 잔여 지분 대부분을 처분한다고 보도됨. 5일 업계에 따르면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등 두산퓨얼셀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 10인은 보유한 두산퓨얼셀 지분의 19.7%를 처분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장 마감 이후 매각 주간사 한국투자증권·KB증권·크레디트스위스를 통해 수요 조사에 돌입했다고 보도됨. (연합뉴스)